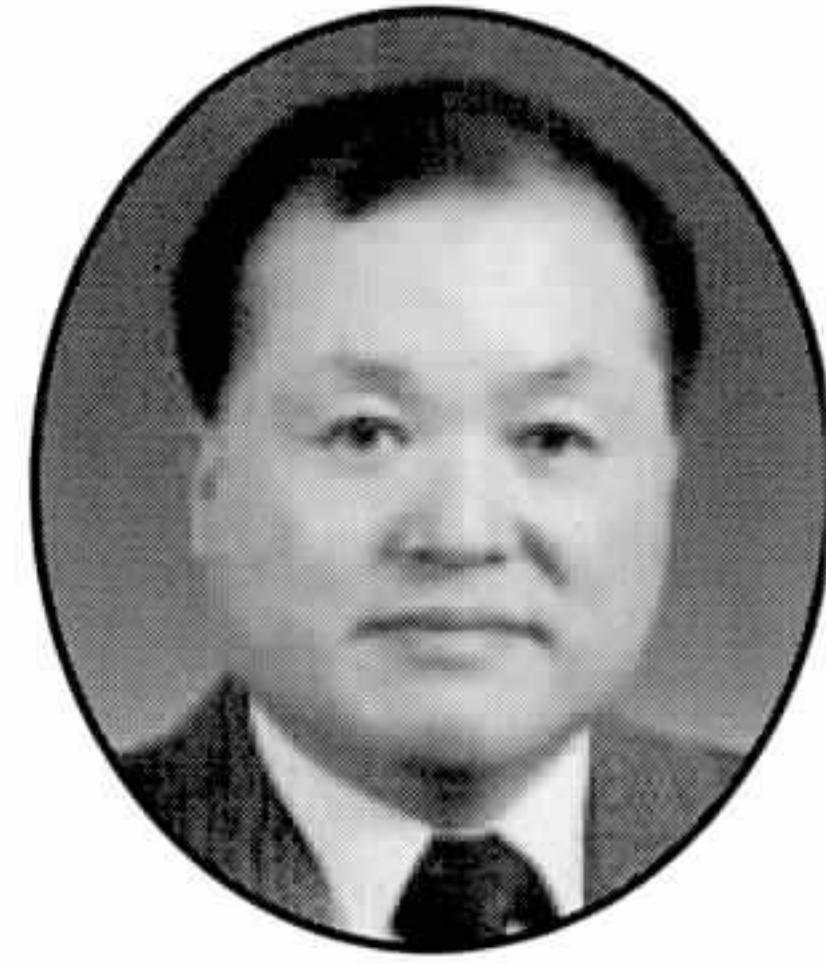


2007년을 마무리하며



(사)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

김 동 민

친애하는 토질및기초기술사 회원 여러분!
2007년도는 계획하였던 대로 잘 마무리하셨는지요?

제가 우리토기회의 회장을 맡은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.
지난 1년은 국내·외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며, 특히 대통령선거와 서해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연말을 바쁜 가운데 더 어수선하게 보내고 있으리라 예상합니다.

지난 2007년 1월 26일에는 기술사법이 새로 개정되어 12월 24일 과기부에서 [제1차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(2008~2010)안]을 수립함에 따라 기술사 제도개선의 첫걸음이 된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.

우리 토기회에서는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계속기술교육(CPD)의 실시, 정관개정 및 과기부 승인, 기술사종목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과기부 건의, 소방방재청의 방재기술사 신설에 대한 의견제시, 홈페이지 개정, 계속교육교재(연약지반편)의 출간, 가을기술발표회 개최 등 바쁜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

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토기회가 무난히 한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임원들의 많은 노고와 함께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.

이 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앞으로 우리 토기회는 회원증가, 계속교육 실시 및 기술발표회 활성화 등으로 진일보한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다른 학회들과 더욱 견고한 유대관계는 물론 과학기술부와 한국기술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급변하는 기술사제도개선에 부응하여 우리회원들의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.

한 시대에 같은 기술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동지여러분!

지난 한해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다가오는 2008년은 건설경기가 더욱 활성화 되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
회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고 건강하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.

2007년 12월 31일